

민중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

박삼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I. 여는 말

II.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

1. 사회적 해방(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방)
2. 인간 해방(비인간화로부터의 해방)
3. 종교적 해방(죄로부터의 해방)

III.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

1. 정치 사회적인 측면
2. 종교 문화적인 측면

IV. 해방과 하나님 나라

V. 닫는 말

• ABSTRACT •

The Meaning of Liberation between Minjung Theology and Latin American Theology

Park, Sam-Kyung

A theology reflects a particular situation. Emerging from a particular social reality, theology exposes the truth of a situation and then brings this concrete reality to bear on the Bible and all religious thought. Minjung theology emerged from the oppressed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Korean people between 1970 and 1980, a different situation from which traditional Western faith-based theologies emerged.

What defines minjung theology is the “minjung experience.” Minjung theology contends that the experience of han among the minjung has to be given epistemological privilege, and that the minjung are active agents engaged in achieving their own liberation. The experience of han is central to the ideology or worldview of the minjung. Han also serves as the key to understanding why minjung cannot be separated from a praxis for liberation. Minjung theology and Latin American theology are based on the self-awakening of the poor in Korea and Latin America as well as their struggles for survival. Both have their own voices and are based on specific and particular experiences. Both theologies refused to uncritically accept European-based theology. They emerge from political, economical, and religious-cultural situations different from those which constitute the basis for European and American theologies.

Even though the content and method of minjung and Latin American Theologies are distinct, they share the goal of liberation and empowerment of those who have suffered for centuries in poverty and political oppression as a result of long periods of colonialism the minjung of Korea and the pueblo of Latin America. In this paper, I will explore the notion of liberation in Latin American theology,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work of Gustavo Gutiérrez, the

first theologian to elaborate a Latin America liberation theology. I will then examine the meaning of liberation in minjung theology, a 20th-century Korean liberation theology that emerged from the context of oppression and injustice during the Park regime in South Korea. The understanding of liberation in both these theologies is central to ethical-theological meanings and both link liberation to the Kingdom of God.

In discussing the Kingdom of God, I will focus on the work of minjung theologians Ahn Byung Mu and Suh Nam Dong. These men all are first generation minjung theologians, the teachers from whom I personally heard the centrality of Kingdom of God through their vision of liberation for all Korean people. In conclusion, I seek to make clear how work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Kingdom of God is central to any elaboration of Korean Christian ethics the work of liberation in Korea. In doing so, I propose a liberation ethics of Kingdom of God.

Key words: liberation, minjung theology, Latin American theology, Han, Kingdom of God, liberation ethics

I. 여는 말

신학은 시대상황을 반영한다. 민중신학은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의 한국의 정치 경제적 억압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정치 경제적 억압의 상황 하에서의 민중 경험(minjung experience)을 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민중 경험의 핵심은 바로 한(han)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은 민중의 세계관의 중심적인 요체다. 그리고 한이란 민중이 왜 해방을 위한 실천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열쇠라고 볼 수 있다.

민중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신학은 각 자의 독특한 경험을 지닌 내용과 방법론들을 갖고 있지만 두 신학들은 오랜 식민지 생활과 독재로부터 받은 정치적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 즉 민중신학의 민중과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푸에블로(pueblo)¹⁾의 해방을 목표삼고 있다. 1960년대에 시작한 라틴 아메리카신학과 1970년대에 생겨난 민중신학은 세계자본주의 국가들을 등에 업은 군부독재정권 하에 시달리는 민중과 푸에블로의 해방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서 생겨났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특별히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을 최초로 주장한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띠에레즈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를 알아본다. 구띠에레즈의 해방 이해를 살펴보면서 그가 사회분석의 한 도구로써 맑시즘의 수용에 관해 분명하게 맑스주의자의 이

1) 보니노(Jose Miguez Bonino)는 민중신학의 민중과 해방신학에서의 푸에블로를 그 단어들 자체가 갖는 다른 사회적 역사성을 말하면서 그 차이점을 비교한다. Jose Miguez Bonino, "Latin American Looks at Minjung Theology", Jung Young Lee, ed., 『An Emerging Theology in World Perspective』, (Twenty-Third Publication, 1988), 158. 고재식은 민중은 생성되어가는 총체적 실재로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반면 푸에블로는 고정되고 한정된 한 계급으로 이해함으로 상대적이고 배타적인 사회경제적 개념으로 본다. 고재식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1980년대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138.

데올로기의 요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사회의 일부 진영에 잘못 알려진 구띠에레즈의 생각들을 새삼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를 살핀다. 민중신학의 해방의 개념은 해방신학이 주로 다루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보다 종교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조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신학들의 해방의 의미들은 윤리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들을 담고 있다. 이런 해방의 의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은 바로 해방을 향한 사람들의 비전이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는 민중신학자 1세대²⁾들인 안병무와 서남동의 작품들을 통해 알아본다. 이 글의 마무리에서 필자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윤리를 제안한다.

II.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

해방은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이데올로기이다. 해방의 의미를 구스타보 구띠에레즈(Gustavo Gutiérrez)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방, 비인간화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죄로부터의 해방.³⁾ 첫 번째 측면에서의 해방은 부자에 의한 가난한 자에 대한 탄압,

2) 민중신학자들은 적어도 시대상황의 차이에 따른 문제인식의 차이로 1세대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나뉜다. 1세대 민중신학자들은 70년대 민주화운동이 전개되는 차원에서 활동했던 안병무, 서남동, 김용복, 현영학, 그리고 서광선 등이다. 2세대 민중신학자들은 80년대의 변혁운동에서 활동했던 박성준 강원돈 서진한 박재순 그리고 권진관 등이다. 3세대 민중신학자들은 90년대의 실천운동에서 활동했던 김경호, 최형목, 김진호, 그리고 김명수 등이다. Kim Jin Ho and Lee Sookjin, "A Retrospect and Prospect on the Korean Modernity and Minjung Theology" PTCA Consultation 2001.

3) Gustavo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24-25; Gustavo Gutiérrez,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Confrontations』,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128-141.

즉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억압을 언급한다. 여기서 억압이란 다른 말로 착취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의(injustice)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구조들 안에서 제도화된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해방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사회-경제-정치적인 구조들의 변혁을 뜻한다.

두 번째 측면에서의 해방은 비인간화의 억압을 말한다. 비인간화의 해방의 범위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반면에 인간성을 잃게 하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한다. 여기서 해방이란 비인간화 된 가난한자들 그리고 억압받은 자들이 먼저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으로서의 과정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억압의 측면은 죄에 관한 것이다. 구띠에레즈에 의하면 죄는 부정의와 억압을 야기하는 궁극적인 원인이다. 죄는 모든 삶의 차원에 스며들어 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의 실현을 이루는 것이다.⁴⁾

1. 사회적 해방(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해방)

수많은 라틴 아메리카인들이 가난과 억압을 경험하는 동안 라틴 아메리카 신학자들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들을 찾았다. 1960년경에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을 최초로 주창한 구띠에레즈와 또 다른 신학자들은 개발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조사를 했다.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은 저개발 국가들이다. 저개발 국가들인 라틴 아메리카의 나라들이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을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모델로 삼아 개발 정책을 해 나갔다. 그러나 개발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고 오히려 1950년대와 60년대 동안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시간이 갈수록

4)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25.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에 종속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라틴 아메리카의 외부적인 종속은 자동적으로 내부적인 종속을 또한 만들어 내었다. 대부분의 많은 가난한 자들은 적은 수의 통치세력에 종속되어져 갔다.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적 면에서 힘을 가진 자들은 계속 역사적으로 변하지 않는 적은 수의 무리들이었다. 외부적인 경제적 종속이 내부적으로 사회 계층을 공고히 하는 것에 공헌을 한 셈이었다. 저임금 근로자, 도시는 물론 농촌의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위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더욱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었다.⁵⁾ 이런 내부적인 종속은 해방의 과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숙고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었다.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자들은 사회-정치적인 해방 없이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이해했다.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자들은 맑스주의자의 계급분석을 수용하여 196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의 사회경제적 분석을 하는 데 사용했다. 그런데 구띠에레즈는 맑시즘(Marxism)의 수용에 있어 맑스주의자의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역사적 유물론이나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⁶⁾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은 맑스주의자의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순수하게 사회분석의 도구로서 맑시즘을 사용한다.⁷⁾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에서 수용하는 맑스주의자의 사회분석은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의 중요한 원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5) 앞의 책, 49-54.

6) Gutiérrez,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60, 63.

7) Leonardo Boff and Clodovis Boff, 『Introducing Liberation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7), 28.

처음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은 문화적인 지배(cultural domination)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었다. 그러나 문화적 종속과 소외는 경제적 지배와 이어지는 사회 정치적인 지배에 따른 최악의 결과물들이었다. 경제적인 종속은 자국민이 갖고 있던 고유의 문화에 맞지 않는 나쁜 가치들을 생산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 점차 그들은 자기 나라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들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⁸⁾

종교적인 종속도 문화 경제적인 종속과 똑같은 길로 찾아왔다. 종속의 다른 형태처럼, 종교적인 종속도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외부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은 다른 나라들의 교회들로부터 중요한 보조금을 받아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신학적으로 그리고 목회 사역을 하는데 받아 온 것이었다. 둘째 내부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은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로부터 사제들의 봉급, 사회적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 받아왔다. 지원 받아 온 교회들의 가르침과 설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들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이런 내부적인 종속은 종종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 선포와 가난한 자들에게 향한 봉사와 헌신하는 것들을 약하게 만들었다.

구띠에레즈의 신학적 작업은 1960년대 살았던 많은 주교들과 사제들 그리고 수녀들과 평신도들에게 교회가 가난한 자와 억압 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활동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가난의 주요한 원인은 억압적인 사회-경제적인 구조들이기 때문에⁹⁾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였다. 사람들이 보다 더 인간적으로 살기위하여 철저한 근본적인 변혁은 모든 악들을 물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를 보다 더 나은 사

8) Rosino Gibellini, ed., 『Frontiers of Theology in Latin Ameri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171.

9)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xxxviii.

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들을 창조해 가는 것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사회적 여건들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¹⁰⁾

2. 인간 해방(비인간화로부터의 해방)

구띠에레즈는 철저한 사회 경제적 질서의 구조적 변혁은 각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¹¹⁾ 각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들을 보다 더 완전한 인간(full humanity)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구조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책임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¹²⁾ 그에 의하면 인간이란 자기 자신의 운명에 의식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바람직한 사회변화의 지평을 넓혀줄 뿐 아니라 역사와 삶을 통하여 인간 자신들의 인간미를 모든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밝혀줄 수 있게 한다.¹³⁾

두 번째 차원의 해방은 새로운 사회는 물론 새로운 인간을 요구한다. 새로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방의 과정은 단지 인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창조하는 것이다. 진정 해방이란 인간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패배 할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¹⁴⁾ 무엇보다 이런 인간 해방이 진정한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구띠에레즈는 인간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사회 구조들이란 항상 구체적인 사람들에 의존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진정 무엇인가를 원할 때 그 일을 반드시 행한다. 모든 사회의 유형은

10) 위의 책.

11) 위의 책, 17-22; Gutiérrez,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132.

12) Gutiérrez,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132.

13) 위의 책.

14) 위의 책, 135.

이렇게 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 본질이다. 인간 내부적인 해방을 추구하기 위하여 인간의 자유는 내적인 차원을 가진다. 즉 사람들은 사회적인 측면의 해방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해방을 바란다. 이런 내적인 자유를 위해서 강력하게 인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바람은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자기 자신의 헌신을 이끌어 내는 충분한 이유들이 되기 때문이다.¹⁵⁾

구띠에레즈는 개인적인 자유가 온 사회에 확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수를 위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자유를 확보 하는 것이다.¹⁶⁾ 이러 면에서 진정한 자유를 점진적으로 얻는 것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초래한다. 그는 자유를 역사적으로 정복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진정한 자유란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힘들에 대항하는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 목표는 너 나 온 삶의 여건이 아니라 사회적인 혁명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들의 변화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간다. 결코 끝나 지 않는 인간됨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창조 즉 영원한 문화적인 혁명이다.¹⁷⁾ 이런 인간됨의 자유의 과정은 세계를 교육시키고 변혁시키는 것에 공헌한다.¹⁸⁾ 이러한 변혁은 개인적인 인간 내적 해방을 포함한다.¹⁹⁾ 그런 다음 인간 해방은 인류의 연대 안에서 더욱 충만하고 완전한 인간성을 이루기 위하여 질적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정복하는 것으로 나아간다.²⁰⁾

15) 위의 책.

16) 위의 책, 134.

17)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21.

18) 위의 책, 19.

19) 위의 책, 20.

20) 위의 책, 22.

구띠에레즈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책임지는 존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해방은 물론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해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외와 착취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인간을 건설하는 것에 중요하지만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도 물론 중요하다고 그는 지적한다.²¹⁾

3. 종교적 해방(죄로부터의 해방)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을 가져 온 분으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일은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죄는 모든 부정의와 억압 그리고 모든 우정 붕괴의 궁극적인 뿌리가 된다.²²⁾ 구띠에레즈에 의하면, 죄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죄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부정의와 억압의 궁극적인 원인이다.²³⁾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구띠에레즈에 의하면 죄란 개인적인 행위는 물론 사회적인 현상을 뜻한다.²⁴⁾ 부정의 한 구조 배후에는 개인적인 또는 집합적인 의지 즉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반대하는 것이 있다.²⁵⁾ 죄는 부정한 상황의 뿌리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자유의 행위의 결과이다. 사회는 진정 인간 자유로운 행위의 따른 죄의 영향을 받는다.²⁶⁾ 죄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우정과

21) 위의 책, 20.

22) Gutiérrez,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136.

23) 위의 책.

24) 위의 책, 137.

25) 위의 책.

26) 위의 책.

연합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현 존재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²⁷⁾

해방은 죄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을 위한 자유를 말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로부터의 해방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²⁸⁾ 해방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웃들과의 만남들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해방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셔서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인간 우정을 위한 기본을 이룬다.²⁹⁾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인간의 연합은 해방의 궁극적인 목적이다.³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고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는 제자들로서 사회정의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공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이런 공적인 비판(denunciation)은 현존하는 부정한 질서로부터 연관되지 않기 위한 의도를 분명하게 하는 한 방식이다.³¹⁾ 교회는 현존하는 부당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정당화하기 위해 기독교를 이용하는 부유한 자들의 삶의 방식을 반대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들은 교회와 힘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교회의 비판은 공적으로 해야 한다. 억압자들과 억압 받는 자들이 공히 교회의 선택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교회는 부정의와 억압과 착취가 없는 새로운 사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한다. 교회는 사회 부정의의 뿌리를 알려야 하고 인류를 위한 하

27) 위의 책, 138.

28) 위의 책, 138-139.

29) 위의 책, 135.

30) 위의 책, 139.

31)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68.

나님의 사랑의 현재성을 선포해야 한다. 이런 수태고지(annunciation)의 선포는 억압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조화 안에서 그들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한다.³²⁾ 교회의 공적인 비판과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함께 되어야 한다. 구띠에레즈는 이러한 공적인 비판과 좋은 소식을 알리는 모든 활동들은 인간화와 의식화의 증진을 사회 안에서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³³⁾

특별히 구띠에레즈는 교회의 교리들에 대하여 도전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해방하게 하는 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억압적인 권력을 유지하게 하고 도와주는 어떠한 결정도 교회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랑과 평화는 결코 불평등 위에서는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주된 초점은 정통교리(orthodoxy)보다는 정통행함(orthopraxy)에 더 가까이 있다. 그는 교회가 이 세상의 가난을 해방시키기 위해 서로 연대(solidarity)하고 가난에 저항(protest)할 것을 주장한다.³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에³⁵⁾ 교회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함은 물론 가난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 스스로가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역사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³⁶⁾

32) 위의 책, 155-161.

33) 위의 책, 155-156.

34) 위의 책, 171.

35) 위의 책.

36) 위의 책, 171-173.

III.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

1. 정치 사회적인 측면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는 라틴 아메리카 신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민중신학의 중요한 열쇠는 정치-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국 민중의 해방이다. 민중신학은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에 대한 부정의에 초점을 맞춘다. 민중신학의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민중신학의 해방은 완전한 인간의 발전에 관한 것이다.³⁷⁾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를 보다 더 이해하기 위해서 민중신학이 시작될 때의 한국의 정치 경제는 군부 전제 정치로 인해 가난과 억압의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종교는 삶의 한 철학처럼 내재되어 있는 까닭에 해방의 의미란 생활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총체적인(holistic)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해방의 의미는 종교적인 신학적인 언어의 사용 없이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기독교인들의 역사와 비기독교인들의 역사라고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중신학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가 비기독교인들의 이야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반대한다. 주류 기독교인들의 이야기는 서양 현대에서 보여주었던 지배자의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민중신학은 소위 세속적인 이야기를 신성한 이야기들로 재해석한다. 그리고 “두 이야기의 합류”³⁸⁾ - 민중전승과 성서전승-를 창조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 이러한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민중전승과 성서

37) Virginia Fabella, ed., 『Asia's Struggle for Full Humanit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0), 122, 152.

38)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45.

전승에서 주장하는 각 자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서로의 특이성을 비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변증법적인 합류이다. 이 합류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억압자들에 대한 민중의 저항 정신을 어떻게 살아있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민중신학자들은 성서를 억압받는 민중들의 경험, 역사 그리고 문화의 이야기로서 간주한다. 민중신학자들은 성서 안에서 해방을 위한 패러다임 혹은 체제를 본다. 그들은 성서가 해방을 위한 민중들의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된다고 이해한다. 출애굽사건은 하나님 백성의 역사적인 중요한 해방 사건이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민중신학의 성서적 해석에 열쇠가 되는 사건들이다.³⁹⁾ 이 두 성서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류의 구원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민중신학자들은 이해한다.

민중신학은 구원을 본질적으로 민중의 모든 억압과 속박으로부터의 역사적 해방과 연결한다. 민중신학은 한국역사에서 해방을 위한 민중의 열망을 좌절시키는 권력들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⁴⁰⁾ 민중신학은 교리적인 절대적인 신을 수용하지를 않는다.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대신에 민중신학은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묻는다.⁴¹⁾ 민중신학은 민중의 희망과 고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행동들을 본다. 민중신학은 인류 역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로 인해 민중신학을 사건의 신학 또는 증언의 신학으로 안병무는

39) Suh Nam Dong, "Historical References for a Theology of Minjung,"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ed., CTC-C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81), 158.

40) Kim Young-Bock, "Messiah and Minjung Discerning Messianic Politics over against Political Messianism,"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ed., CTC-C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81), 186.

41) Suh Changwon, 『A Formulation of Minjung Theology: Toward a Socio-Historical Theology of Asia』, (Seoul: Nathan Publishing, 1990), 168.

묘사한다.⁴²⁾

민중신학은 인류 역사 안에서 민중과 함께 행동하는 하나님을 공동의 해방자(co-liberator)로서 본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민중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해방의 하나님은 민중의 현존에서부터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울음소리에 귀 기울인다.⁴³⁾ 해방을 향한 역사적인 변혁 안에서 하나님과 민중은 함께 고통 받고 함께 협력자가 된다. 민중의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민중의 고통은 사회 모순들을 나타내는 메시아의 소리이다. 하나님은 또한 민중을 해방시키는 분이다.⁴⁴⁾

한국역사에서 민중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문화적으로 멸시받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던 가난한 자들과 여성들 그리고 농부들과 노동자들을 말한다. 한국의 역사를 통해 민중들은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멸시를 받는 한 맺힌 삶을 살아왔다. 한국 민중의 한은 약자들의 단념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중의 자의식이 자라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을 억압받는 자들의 정치적인 의식으로 서남동은 규정한다.⁴⁵⁾ 한국 민중의 한을 잘 이해하는 것이 민중신학이 말하는 해방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민중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민중신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민중의 구원의 상징들이다. 예수의 죽음은 민중의 고통과 죽음을 반영하고 이는 정의를 위한 민중의 투쟁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민중은 억압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예수가 그 당시

42)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Seoul: Korean Theological Study Institute, 1988), 26.

43) 서창원, 위의 책, 169.

44) 위의 책, 171.

45) Suh Nam Dong, "Toward a Theology of Han," in 『Minjung Theology』, ed., Commission on Theological Concerns of the Christian Conference of Asia (Maryknoll, NY: Orbis Books, 1981)60, 64.

의 일반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셨던 것처럼 민중들은 그들의 억압자들에게 저항한다. 계속해서 민중은 완전한 해방의 그날이 올 때까지 일어나고 또 일어 날 것이다. 민중신학은 예수가 누구신가보다 무엇을 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⁴⁶⁾ 민중신학은 해방을 위한 민중의 투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한다고 이해한다. 민중신학이 강조하는 것은 정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 안에서 민중들의 역사적 사명의 중요성이다. 민중신학은 민중이 역사변혁의 진정한 주체자라고 이해하며 해방투쟁을 이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확신한다.

2. 종교 문화적인 측면

한국 기독교의 뿌리는 서양 기독교 안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민중신학은 서양의 신학적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항한다.⁴⁷⁾ 민중신학은 한국 고유의 종교와 문화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내어 토착화 작업을 하면서 서양의 신학적 제국주의에 저항한다. 민중신학은 한국의 전통종교들 즉 샤머니즘, 불교, 그리고 유교 등을 조사해서 한국 전통 종교들의 해방적인 면들을 중요하게 다룬다.⁴⁸⁾ 이러한 종교 전통들은 해방을 이기주의로부터의 자유와 연결한다. 샤머니즘, 불교 그리고 유교 등에서 해방을 위한 추구는 현 세계의 부정에 따른 두 개의 유형들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사회 정치적인 책임성을 있게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방을 위한 역사적인 투쟁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직접적인 대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인 형태들로 저항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탈춤, 민담 그리

46) 서창원, 위의 책, 174, 177.

47) 위의 책, 216.

48) 위의 책, 232-233.

고 판소리 등을 이용하여 투쟁하는 것이다.⁴⁹⁾ 민중신학에 의해 사용된 민중 문화적인 형태들은 그 자체가 전제주의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문화적인 수단들은 사회적 분석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되고 민중의 가치를 현실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런 문화적인 방법들은 바로 민중의식의 모든 표현들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적 공연들은 민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축적된 한의 감정을 풀어내게 한다. 예를 들어 탈춤에서 공연자들과 관람자들이 함께 농담과 풍자로 타락한 불교 스님들과 유교 귀족들 그리고 현시대의 억압자들을 조롱한다.⁵⁰⁾ 이런 탈춤들은 민중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표현한다. 탈춤에 의해 그려지는 드라마 안에서 지배계급은 흉악범으로 취급되고 있고 민중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이는 현실을 다룸에 있어 지배 계급들의 사악함과 천박함 그리고 그들의 위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탈춤 안에서 공연자나 관람자나 할 것 없이 민중은 이 세상에 대한 비판적 초월을 경험하고 현실의 부조리를 풍자로 표현한다.⁵¹⁾ 이런 초월의 경험은 민중들에게 풍자와 함께 생존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제공한다. 탈춤 안에서 민중들은 그들의 거친 현실에 대해서 수동적이지 않다. 탈춤은 지배계층에 도전하며 저항하는 그리고 연대를 보여주는 한 방법이다. 이런 탈춤의 경험은 민중들에게 그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용기를 제공한다.

민중신학 안에서 해방의 의미는 가난과 한으로부터 그리고 서양 제국주의 기독교로부터 빠져나와 완전한 인간(full humanity)⁵²⁾이 되기 위한

49) Hyun Young-Hak, "A Theological Look at the Mask Dance in Korea"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47-54.

50) Suh David Kwang Sun, "A Biographical Sketch an Asian Theological Consultation,"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25.

51) Hyun Young-Hak, 앞의 책, 50.

것임을 보여준다. 완전한 인간은 자기 결정권을 갖으며 그리고 정치-사회 그리고 종교-문화적인 해방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해방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언어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진다.

IV. 해방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은 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의란 복음의 중요한 메시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다음 세상을 가기 위한 희망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 안에서 이루려고 시작하는 한 현실(reality)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억압 받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의한 주도로 해방을 위한 투쟁하는 현재로부터 시작한다. 특별히 구뎀에레즈는 하나님 나라와 해방과 관련하여 가난을 악으로 보고 하나님 나라와 가난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면서 세상 가난의 해방을 위해 저항할 것을 주장한다.⁵³⁾

서남동은 하나님 나라와 천년 왕국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⁵⁴⁾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같은 궁극적인 상징이고 천년 왕국은 역사적이고 이 땅에서 그리고 반-궁극적인 상징으로 말한다. 즉 하나님 나라는 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보는 반면에 천년 왕국은 역사와 사회가 새롭게 되는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자의 이데올로기로써

52) 이 완전한 인간(a full humanity)이라는 주제는 1979년에 스리랑카에서 열렸던 EATWOT(the Ecumenical Association of Third World Theologians) 회의에서 다루어진 중심어다. Virginia Fabella, ed., 『Asia's Struggle for Full Humanity: Toward a Relevant Theolog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0), 122, 152, 156-157.

53) Gutié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171.

54) Suh Nam Dong, "Historical Reference for a Theology of Minjung,"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 of History』, 162.

이해하는 반면 천년왕국은 민중의 열망을 상징화 한 것으로 보고 있다.⁵⁵⁾

서남동은 역사가 천년 왕국에서 완전하게 이를 민중 해방의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는 세단계로 역사적인 해방의 과정을 말한다: 1) 귀족들에 의한 봉건적인 사회 2) 자본주의 계급사회 3) 민중들의 시대.⁵⁶⁾ 마지막 단계인 민중들의 시대에서 민중은 모든 억압의 형태로부터 해방되어진다. 해방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가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인류 역사를 넘어서 천년 왕국을 지나서 그 다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천년 왕국의 사상은 비통한 민중의 한을 일으키는 현 사회 질서를 부정하는 철저한 사회적 변혁에 관한 것이다 라고 서남동은 주장한다.

서남동과는 달리 안병무는 역사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⁵⁷⁾ 하나님 나라의 설립은 최상의 목표이기에 모든 민중들이 이루어야 할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고대 이스라엘의 평등사회 즉 야웨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는 인근 동맹체를 말한다.⁵⁸⁾ 안병무는 천년왕국이란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잘못 영적으로만 해석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들에게 힘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것임을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민중은 그들 자신의 운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민중들이 끝까지 희망하고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한 현실이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죄와 악의 힘에 대항하는 것에서부터 온다. 이런 투쟁은 모든 억압적인 힘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다. 안병무는 원

55) 앞의 책.

56) 앞의 책, 169.

57) 안병무, 『민중 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252.

58) 앞의 책, 55, 139.

죄를 공(公)의 사유화로 간주한다.⁵⁹⁾ 그는 창세기의 인간 타락의 이야기를 재해석하여 공을 사유화 한 죄의 원형(prototype)으로 해석한다.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공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한 것이 타락이고 죄다.⁶⁰⁾ 안병무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란 공을 공으로 돌리는 것이다.⁶¹⁾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서의 회년의 정신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⁶²⁾

안병무는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의 양식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우리의 매일 양식과 관련이 있다고 그는 본다. 우리가 우리의 매일 양식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하나님 나라는 현실이 된다.⁶³⁾ 각 사람, 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공적인 것을 착취하는 모든 기회들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들이 왜 이 세상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알게 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적이냐 현재적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객체로 놓고 볼 때 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갈릴레아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현실이었다고 말한다.⁶⁴⁾

V. 닫는 말

서남동의 하나님 나라는 참여적인 민중 민주주의⁶⁵⁾을 통하여 인간의

59) 앞의 책, 203-204, 326.

60) 앞의 책 326.

61) 앞의 책, 246.

62) 앞의 책.

63) 앞의 책.

64) 앞의 책, 231.

65)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139, 148, 157-58.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삶을 뜻하는 것이고, 안병무의 하나님 나라는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서남동은 보다 더 나은 인간적인 사회를 위하여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사회적인 변혁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다. 안병무도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등한 사회로 돌아가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민중의 인간적인 존엄성의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의의 대안 공동체를 가져오기 위하여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뮈에레즈는 가난의 해방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그 무엇보다 우선시 한다. 교회의 자발적 가난이야말로 해방과 사랑의 행위로 보고 있고 구원의 가치를 지닌 일로 말한다.

민중신학이 말하는 한이 없는 사회 그리고 해방신학이 말하는 가난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와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비전이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지금 여기에 진리 안에 있다는 의미이다. 진정으로 정의와 해방 없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정의, 해방 그리고 구원이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비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 함께 연대하여 불의와 억압에 투쟁하여 진정한 해방과 가난이 없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뜻하는 해방의 총체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윤리를 필자는 제안한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 윤리의 목적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해방과 평화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를 구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평화와 화해를

요청한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윤리는 인간 존엄성을 기본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새 인간으로 발전하는 것과 이 땅의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가난과 부정의 그리고 모든 억압들의 형태 등으로부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해방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가는 과정에서 가난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자발적 가난을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발적 가난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해방 윤리는 남한과 북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한다. 통일이 없이는 남한과 북한의 진정한 한이 없는 사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한이 없는 사회란 남한의 권위주의 사회와 북한의 전제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해방윤리는 정의와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참고문헌

- 고재식. 『민중신학과 해방신학』. 『1980년대 한국 민중신학의 전개』.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0.
- 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서울: 한길사, 1983.
- 안병무. 『민중신학 이야기』.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Fabella, Virginia, ed., 『Asia's Struggle for Full Humanity』. Maryknoll, NY: Orbis Books, 1980.
- Gutiérrez, Gustavo. 『A Theology of Liberation』. Revised Edi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88.
- _____.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Confrontation』. Maryknoll, NY: Orbis Books, 1991.
- Gibellini, Rosino, ed., 『Frontiers of Theology in Latin Ameri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79.
- Hyun, Young-Hak. "A Theological Look at the Mask Dance in Korea,"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 of History』. Edited by CTA-CCA, 47-54. Maryknoll, NY: Orbis Books, 1981.
- Kim, Young-Bock. "Messiah and Minjung Discerning Messianic Politics over against Political Messianism,"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ed., CTC_CCA Maryknoll, NY:Orbis Books, 1981.
- Kim, Jin Ho and Sookjin Lee. "A Retrospect and Prospect on the Korean Modernity and Minjung Theology," PTCA Consultation, 2001.
- Míguez Bonino, Jose. 『Toward a Christian Political Ethics』. Philadelphia, PA: Fortress Press, 1983.
- Suh, Changwon. 『A Formation of Minjung Theology: Toward a Socio-Historical Theology of Asia』. Seoul: Nathan Publishing, 1990.
- Suh, Nam Dong. "Toward a Theology of Han"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Edited by CTA-CCA, 55-69. Maryknoll, NY: Orbis Books, 1981.
- _____. "Historical References for a Theology of Minjung," in 『Minjung

Theology: People as the Subjects of History』, ed., CTC-C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81.

논문투고일: 2012. 10. 24

심사개시일: 2012. 11. 27

게재확정일: 2012. 12. 19

 • 국 문 초 록 •

민중신학과 라틴 아메리카신학은 각 자의 독특한 시대 경험을 지닌 내용과 방법론들을 갖고 있지만 두 신학들은 정치적인 억압과 가난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람들 위한 해방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라틴 아메리카신학의 해방의 의미를 구스타보 구띠에레즈의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는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해방, 비인간화로부터의 인간해방 그리고 죄로부터의 종교해방을 말한다. 그의 해방 이해를 살펴보면서 그가 사회분석의 한 도구로써 맑시즘의 수용에 관해 맑스주의자의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민중신학의 해방의 의미를 성찰한다.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해방의 의미와 종교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해방의 의미를 알아본다. 민중신학의 해방의 개념은 해방신학이 주로 다루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종교 문화적인 측면이 더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두 신학들의 해방의 의미는 신학-윤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 두 신학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와 평등의 대안 공동체를 가져오기를 원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와 해방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민중신학자 안병무와 서남동의 작품을 통해 살핀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해방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를 위해 교회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함은 물론 가난을 대항하기 위해서 교회 스스로가 가난해질 때 비로써 하나님 나라를 역사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이 뜻하는 해방의 총체적 의미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해방윤리를 필자는 제안한다.

주제어: 해방, 민중신학, 라틴 아메리카신학, 한, 하나님 나라, 해방윤리
